

제 49 강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누가복음 연구 II)

■ 성경본문 누가복음 19:28-24:53 ■

프렐류드(Prelude)



누가복음 속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예수의 수난과 부활을 주제로 합니다. 그러나 마태와 마가복음과는 달리 누가복음은 예수 수난의 책임을 로마 제국의 총독 빌라도로부터 유대교의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의 1차 책임이 로마 제국의 관리가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로마법의 기준에 따라 처형된 것이 아니라 유대 지도

자들의 음모에 의해 희생된 것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반-로마, 반-유대주의였지만, 누가복음은 친로마, 반 유대주의였습니다.

누가가 본 구원사 4단계

이스라엘의 시대(율법과 예언자의 시대)
예수 시대(구원이 기록되는 새 시대)
: 예수의 나사렛 설교로 시작(눅 4:21)하여 예수의 승천으로 끝남(눅 24:50-51)
교회 시대(구원이 온 세상으로 확산되는 시대)
: 오순절 성령 강림(행 2:1-13)으로 시작하여 예수의 재림 때까지
종말(완성)
: 시대 구분에 속하지 않음

I. 주요 내용

1. 예수 사역의 비정치성(누가복음 19:28-48)
2. 유대 지도자들의 살인음모(누가복음 20:1-22:71)
3. 예수의 무죄한 죽음(누가복음 23:1-49)
4. 예수의 부활과 승천(누가복음 23:50-24:53)

II. 시대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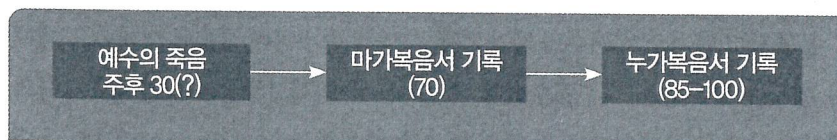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를 ‘팍스 로마나’(Pax Romana)라고 합니다. 이때 로마는 유럽과 서아시아의 절반을 손에 넣고 지배하였으며, 이에 감히 도전하는 ‘적’(敵)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로마의 극형인 십자가에서 처형된 예수가 세계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증거하는 것은 큰 오해와 역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십자가 처형은 정치적 반역자를 처형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전도자들은 예수의 죽음이 정치적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은 예수의 수난이 로마 총독의 유죄 판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에 음모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 총

독 빌라도는 세 번씩이나 예수의 무죄를 선언하고, 예수를 방면하려 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누가는 복음이 로마 제국을 넘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는 중요한 길목에서 오해와 장애가 될 수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연대표〉



III. 말씀과 해석

1. 예수 사역의 비정치성(누가복음 19:28-48)

오랜 세월 주변 강국들로부터 침략과 수탈을 당해 온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를 하루아침에 무찌를 정치적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옛 다윗 왕국의 영화를 되찾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께서 이적을 베풀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자 제자와 군중까지도 예수를 정치적 메시아로 보고 모여들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작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눅 19:28-40), 따르는 무리는 큰 행렬이 아니라 극히 작은 '제자의 온 무리'(눅 19:37)였으며, '평화'라는 용어가 두 번이나 사용된(눅 19:38, 42) 데서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은 극히 평화로운 것이었음을 들어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후 성전을 정화한 사건(눅 19:45, 46), 날마다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신 행적(눅 19:47, 48)을 통해서도 누가는 예수의 사역이 '비정치적'(非政治的)이었음을 강조합니다.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를 시험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눅 20:19-26)의 쟁론에서도 예수는 로마 제국의 실체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신 일화는 예수의 비 정치성을 드러내는 예증이었습니다.

2. 유대 지도자들의 살인 음모(누가복음 20:1-22:71)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정화하신 것을 지켜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하고 있었을 때(눅 19:47) 예수께서 비유하신 포도원의 악한 농부(눅 20:9-18)가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를 잡으려 했습니다.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의 제자 가롯 유다를 매수하여 예수를 넘겨받을 계획을 세웠습니다(눅 22:1-16).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장로들이 가롯 유다의 인도를 따라 예수를 체포하였습니다(눅 22:52).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에서는 온갖 희롱과 구타를 가한 다음(눅 22:63-65) 공회를 소집하고 예수를 정죄하였습니다(눅 22:71). 그러나 사형권이 없었던 그들은 예수를 빌라도에게 보내 사형을 선고하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의 십자가 처형이 로마 당국자보다 유대 지도자들의 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정치적 죽음이 아니라 종교적 죽음이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3. 예수의 무죄한 죽음(누가복음 23:1-49)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 증언되어 왔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세 번씩이나(눅 23:4, 14, 22) 예수의 무죄를 선포했습니다(눅 23:16, 20, 22). 빌라도와는 원수 관계에 있었던 반이방인 헤롯 왕도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겨주었습니다(눅 23:11, 15).

더 나아가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는 순간을 지켜본 로마의 백부장은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눅 23:47). 의인은 죄 없음을 선포하는 법정 용어였습니다. 누가는 이렇듯 예수의 무죄는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 증언되었음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4. 예수의 부활과 승천(누가복음 23:50-24:53)

여러 차례 예고하신 대로 예수께서는 동족 유대인들의 음모로 로마의 극형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죽음을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부활 사건은 ‘빈 무덤’의 ‘반증’(反證)에서 증언되기 시작했습니다.

충성스런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눅 24:10)가 예수의 죽은 몸에 향품을 뿌리러 갔다가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목격한데서 부활의 증언은 시작되었습니다. 누가는 여인들을 부활의 첫 증언자들로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젊은이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동행하시고 말씀을 나누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습니다(눅 24:13-32). 그리고 두 젊은이가 돌아와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에게 자신들의 목격담을 이야기할 때, 예수는 친히 그들에게 나타나사 상처 난 손과 발을 보이시고(눅 24:40)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기까지 하셨습니다(눅 24:41-43). 누가는 다른 복음서와 하나 같이 예수의 부활은 육을 떠난 영혼만의 출현이 아니라, 몸과 살이 다시 살아난 육이 부활하셨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라고 말씀하시고(눅 24:49) 베다니 앞에서 손을 들어 축복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눅 24:50-51). 이처럼 누가는 예수의 수난, 십자가, 부활, 승천하심을 정점으로 하여 복음서를 맺습니다.

IV. 성찰과 나눔

1.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의 생애와 사역, 수난과 부활을 같은 관점에서 본다는 의미로 ‘공관 복음서’(共觀福音書)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예수를 모세보다 큰 이로, 마가복음은 ‘고난의 종’으로,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의 주’로 조금씩은 다른 색깔로 예수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2. 예수의 부름을 받고 3년간 함께 동고동락한 제자들은 그때 보고 들은 선생님의 말씀과 행적을 그때는 기록하지도 않았습니 다. 그때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은 곧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 그러나 예수의 재림은 늦어지고, 로마의 박해와 유대주의의 핍박이 심해지자 제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가는데 마다 그곳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거기서 생겨난 공동체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공동체였습니다.

4. 그중에서도 유독 누가는 예수를 소외된 자와 이방인 그리고 모든 인류의 구세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를 인류의 구세주로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경을 넘고 인종을 넘었으며 남녀성별을 넘어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증언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세계선교의 시작이 되고 세계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